

신안군 섬마을 색채 디자인으로 문화·예술 옷 입힌다

색채 디자인 용역 보고회 개최

대표 색상은 '코발트블루'

김환기 화백이 사랑했던 색

새뜰마을·어촌뉴딜 사업에 적용

노후 건축물 정비 관광자원화

신안군이 섬마을에 문화와 예술을 입힌다. 대표 색상은 '코발트블루'다.

신안 안좌 출신의 한국 근현대미술의 거장 수화 김환기 화백의 작품 세계에 많이 표현되는 다도해 푸른 바다의 향수와 고향의 그리움을 담은 색이다.

신안군은 농어촌 마을의 낡은 건축물 외부 색채 정비를 통한 특색있는 관광자원 개발과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최근 색채 디자인 용역 보고회

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진행 중인 일반농산어촌개발, 새뜰마을, 어촌 뉴딜 300, 가고 싶은 섬 등에 우선 적용할 색채 경관에 대해 박우량 군수와 군의원 등 참석자들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지음 플러스 김성훈 교수와 맛예술문화과 최흥철 박사팀은 읍·면 소재지 마을의 역사적·인문적 요인과 현재 마을을 대표하는 지붕색을 고려한 색채 계획과 낙도의 문화와 특색을 살려 정체성을 표현할 작은 섬 색채 계획 등을 제시했다.

세부계획은 섬마을 건축물의 형태, 지역적 특성과 자연과 조화를 고려해 수립할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가고 싶은 섬으로 개발 중인 '퍼플섬' 안좌 반월·박지도와 같이 포인트를 살린 벽체 디자인과 통일성을 살린 지붕의 채색이 앞으로 신안 지역 창생을 위한 단초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신안군 기점 선착장의 '베드로의 집'.



신안군 박지도 전경.



완도 화흥포~소안 항로 811t급 대형 차도선 신규 취항

승객 700명·소형차 70대 동시 수송 새로운 도서관광 수요 창출 기대

완도 화흥포와 소안도 항로에 811t급 대형 차도선 '민국호'가 29일 신규취항에 들어갔다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밝혔다.

완도 화흥포-소안 항로는 현재 차도선 3척(대

한, 민국, 만세)이 매일 12차례 왕복 운항 중으로, 민국호는 기존 388t급 여객선(舊민국호)을 대체한다.

민국호는 여객 700명, 차량은 소형차 기준으로 70대를 동시 수송할 수 있다. 이에 완도와 노화도·소안도 간 여객과 물류수송에 기여할 전망이다.

민국호는 선사인 소안농협이 해양수산부의 선박 현대화 지원 사업을 도움을 받아 건조했다. 70억

원이 투입됐다.

장귀표 목포해수정장은 "연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여객이 급감하여 연안선사들이 경영위기에 처한 가운데 대형 차도선의 신규 취항으로 새로운 도서관광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타 항로에도 노후 여객선의 신종 대체를 적극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무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오늘 정상근무 합니다"

농번기 영농 차질 없도록

무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농업인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농번기 영농에 차질이 없게 하도록 1일 '근로자의 날'에 정상 근무한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날에는 무안군이 운영하는 농기계임대

사업소 무안 본소와 일로·해제·운남본소까지 4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고 및 입고해야 한다. 무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관계자는 "지난 30일부터 징검다리 휴일 기간 동안 자녀들이 부모님의 일손을 돕기 위해 농사일을 거드는

경우가 많아 임대 농기계 사용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정상 근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코로나 19 영향으로 구인난이 심화하면서 적기 영농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농기계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있다. 지난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100% 감면하며, 관내 농업인은 누구나 임대 농기계 이용 시 1일 임대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신안 임자도 대광해수욕장 새 단장

내년 3월 임자대교 개통 대비 24억 들여 낡은 시설 개보수

신안군은 임자도 대광해수욕장을 새롭게 정비한다고 30일 밝혔다.

1990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돼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하고 내년 3월 임자대교 개통으로 대폭 늘어날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신안군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도비 14억 원을 포함해 총 24억 원을 들여 화장실, 샤워장 등 낡은 시

설을 개보수한다. 장애물 없는 시설 보강, 보행환경개선·산책로 정비사업도 한다.

임자도는 톨립 축제로 유명한 곳이다. 아시아에서 가장 긴 12km의 해수욕장을 품고 있으며 병어, 민어 등 먹거리와 갯벌 체험, 승마 체험과 같은 즐길 거리가 풍부해 사계절 관광지로 꼽힌다.

박우량 군수는 "백사장과 톨립이 아름다운 대광해수욕장을 새롭게 단장해 섬과 바다, 해변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편하게 쉬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완도군 수산물 드라이브 스루 판매 5월에도 계속

5월까지 고금대교 휴게소 광장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완도군의 수산물 드라이브 스루 판매(사진)가 5월에도 지속된다.

황금연휴 기간인 1일부터 5일까지 4일간 고금대교 휴게소 광장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행사는 고금 어류협회가 주관한다.

현장에서 직접 손질한 광어회(750g)와 전복회(2마리), 양념 세트는 꾸러미로 소포장해 2만5000원에 판매한다. 고금대교 광장은 장보고대교 개통으로 강진 마량을 통해 완도로 들어오는 교통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 곳이다.

완도군은 지난 3월부터 신지면과 고금면, 광주시에서 광어와 전복 소비촉진을 위한 드라이브 스루 판매를 진행했다. 코로나 19로 판매가 급감한 완도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청정바다에서 생산되는 완도산 수산물을 많이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완도군은 5월 가정의 달 맞이 2차 드라이브 스루 수산물 판매를 9일부터 10일까지 복수원 패션 아울렛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 총괄본부장 ejhung@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